● 타<del>운뉴</del>스 칼럼

# 말, 말, 말



'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', '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', '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', '낮말 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', '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', '아 다르고 어 다르다', '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', '침묵은 금이다'

말에 관련된 속담을 생각해 봤다. 말은 잘 하면 득 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기도 한다. 잘 못 말하기 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더 낫다.

언제쯤인지 기억되지도 않는 일이 떠오른다. 어느 모 임에서 한 사람이 참석자들을 즐겁게 해준답시고 음 담패설을 꺼내더니 쌍소리를 섞어가며 웃기기 시작했 다. 특정인을 겨냥하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욕을 섞어 가며 우스갯소리를 한동안 계속했다. 사람들은 대부 분 배꼽을 잡고 웃었다. 웃기려고 지나치게 억지를 쓴 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려 했다. 하 지만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눈살을 찌푸렸다. 급 기야 몇몇 분들은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소리쳤다.

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조심해야 한다. 그러나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말 이다. 필자도 거슬리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거침없이 표현하는 편이다. 거기다 목 소리까지 커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는다. 가 능한 한 말을 삼가려고 노력하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. 주변에서 나이 들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.

'마셜 로젠버그' 는 『비폭력 대화』 라는 저서에서 말 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. 자신의 말이 폭력적이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누군 가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고,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폭 력으로 행사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. 우리 삶에서 유 형, 무형의 폭력을 줄이고 평화롭게 원하는 바를 충족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권하고 있다.

사실 자신의 말투와 행동, 습관을 통째로 되돌아보 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. 되돌아보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들 가운데 무엇이 잘 못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.

요즈음은 굳이 입으로 하는 말만 말이 아닌 세상이

다. SNS상에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 말, 오히려 예전보 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. 말이 글자로 남아 있기에. 후 에 잘못되었다고 지운다 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 고, 또 이를 저장해두었다면 그대로 존재해서 온라인, 오프라인 상에 떠돌아다닐 것이기에.

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를 알아야 한다. 내가 어 떤 사람인가를 명확히 알고 입을 열거나 자판을 두드 려야 한다. 그리고 나를 아는 것이 말하기 첫걸음이라 면, 상대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 드 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. 특히 상대가 나와 세대 나 성별, 혹은 입장이 전혀 다른 경우라면 말하기에 있 어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화를 판가름하 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.

대화는 '이해하는 대화' 와 '가치를 전하는 대화' 로 나누어 볼 수 있다. 부모와 자식, 스승과 제자 사이에 는 주로 가치를 전하는 대화로 일방적일 수 있으나 그 어떤 관계에서고 이해하는 대화와 가치를 전하는 대 화의 비중을 80:20 정도의 비율로 하는 것이 좋다. 대 화는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할 때 훨씬 서로 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하루종일 말한 마디 하지 않고도 큰 문제없이 살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면서 살기를 원한 다. 즉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갈구하는 존재이다. 그 소통의 최대 덕목이 배려이다. 듣는 이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주장이나 생각만을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.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, 그 안에서 말 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.

4·15 총선이 끝나자마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설로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다. SNS상에서도 갖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돌아다닌다. 심장질환 수 술을 했는데 위독하다는 얘기부터 자살 폭탄을 안고 한 여성이 달려들었다는 설, 중국의 후원을 받는 세 력들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이 구금 상태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런 기사들 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부질없는 입놀림과 다름이 없 다. 함부로 이런 저런 기사들을 마구 옮기기보다 조 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낫지 않 을까 싶다.

chahn@townnewsusa.com

### 타운뉴스

# 제 1313호 목차



타운뉴스 칼럼	11
커뮤니티 소식	
법률	
나는야 1,5세 아줌마	
전문인 칼럼	
숨은그림 찾기,답/낱말 퀴즈,답	
지금 서울에서는	23
교육	24
세상에 이런 일이	
스포츠	
여행	
<b>한인업소 안내지도</b> 28,3	
부동산/경제	31
깔깔	36
함께 생각	39
요리	41
연예	43,45
Domestic/ 주간운세	44
중고차, 안내광고	46,47
그림여행	53

매장·화장·묘지주선·이장·장례보험등

-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(LA, OC-20분)
-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.

24시간 대표: 정 영 목 목사 9830 Lakewood Blvd., Downey, CA 90240 (562)622-9393

# **ŀ운뉴스**゜배포지역

- 로스엔젤레스, 세리토스, 아테시아
- 가디나, 토랜스

터스틴 김전중 종합치과 이전 개원

- 하시엔다, 로랜하이츠,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
- · 오렌지카운티 전지역

광고문의 714,530,1367 info@townnewsusa.com

-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

- ADA, CDA, OCDS, KADA 회원

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, 치아이식과 임상과장 — 미 치아이식학회 (AAID, AO)회원

www.townnewsusa.com

### **Keon-Jung Kim Dental Corp.**

IMPLANT, COSMETIC, ORTHODONTIC & LASER DENTISTRY ORAL SURGERY

평생 치아 건강을 맡길수 있는

34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와의 만남...

### 일반 - 미용치과 전문

Jeon Hara, DDS, MS, Ph.D Jeong Eun Kim, DDS Soyoun Jenny Min, DDS Maria Capiral, DDS

### 교정치과 전문

Jin Kim, DDS,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(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)

- 3차원 CT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
-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괴수술 및 동영상 촬영
-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· 무출혈 · 무통 잇몸치료

### **New Address**

2492 Walnut Ave. #200, Tustin, CA 92780 949.679.6000 / (San Diego) 760.479.9876 www.timkimdental.com

Medicare B plan (PPO) provider Health care(PPO) 취급하여 뼈이식과 Implant 할인 혜택 가능



